

문학과 종교 연구회

2022. 4. 23. 14:00

한미야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과 메시아니즘

레비나스, 메시아 도래의 보편성

-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타자의 얼굴에서 보는 신의 모습은 무한성의 현현이다.

- 문명의 탁월함은 독창성에 있기보다는 보편성에 있다. (Difficult 52)

- 타자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가능성에 기초한 보편성에 입각한다. (148)

- 진정한 메시아적 시대란 '현세에 종말이 오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상태'와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어 나타나는 시대'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랍비 요나한**의 시각: 역사적 연결을 강조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절대적 책임을 갖는 인간들의 도덕적 인식이 변하는 순간이다.**

◎ **랍비 사무엘**의 시각: 절대적인 신, 종말 이후 신의 도래를 이야기한 메시아적 시대 등장 사회적 불의가 없는 상태의 메시아적 시대를 논한다. 타자에게 많이 주고 양보하는 시대이다. **역사적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 메시아가 도래한다.**

예화) 랍비 레비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고 묻자 엘리야는 문둥병자 사이에 메시아가 실제 계시니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랍비 레비의 질문에 메시아는 오늘 온다고 이야기한다. 엘리야는 “---- 라는 조건하에 오늘”을 이야기한다. 그 조건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메시아 도래의 보편성은 유대인들이 국가를 고수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며 사는 유랑의 삶과 연결된다. 유랑인의 보편성은 정치적 갈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때 나의 책임은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이러한 책임의 이행으로 통해 진정한 보편성을 실현하고 이는 우주를 지탱하는데 이것이 메시아 주의이다.(151)

- 레비나스의 메시아니즘은 사회 역사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 구체적 사회문화종교보다 더욱 보편적인 것에서 유래하며 이 보편성은 인간들 사이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구체적 정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도덕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편성이 메시아주의이다.

- 레비나스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토라가 명령하는 '이웃을 책임지는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의식이다. 시온주의는 구체적 유대문화의 계승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적 양상을 띤다. 사람 간의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인 것으로 “인간간의 관계 속 신이 존재한다.”(**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Luke 17:21**)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레비나스의 '존재아님'의 윤리학

-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존재론에 우선하는 것으로 구체적 시간과 공간에 속한 개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 해야함을 강조하는 윤리학이다.

- 크리츨리(Simon Critchley)에 따르면 레비나스 주장의 핵심은 사회 상호활동이 타자에 대한 윤리적 관계로 지탱되지 않을 때 타자의 인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적 행보가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 레비나스 「근본적 문제: 하이데거와 대칭되는 칸트」

하이데거 철학이 '인간의 마음씀'을 논하는 등 좀더 구체적 차원의 인간으로 생각을 전환시킨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하이데거가 존재의 모든 것을 존재 차원으로 환원하며, 존재의 수호자, 인도자가 되는 것(God, Death 58)을 '사람됨'으로 보았다고 레비나스는 평가한다.

· 하이데거 이전에는 추상적 이념이 일차적 관심사였고 세계는 '신 실체 초월적 이성 등의 재현'이었다. 하이데거는 세계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사람과의 관계는 존재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었다. 레비나스에게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은 외로운 것이고 변화와 만남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인간과의 기본적인 만남은 타자와의 만남이 아니라 존재와의 만남인 것이다. 르웰린(Llewelyn)에 따르면 레비나스는 존재와 존재자에만 관심을 두고 타자에는 관심이 없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156)

- 기존 철학에 대한 레비나스의 반감은 소크라테스에 이어 버클리, 후설, 하이데거의 존재론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그는 '존재의 우위성을 단언하는 것은 철학에서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고 관계는 존재자들의 존재에 굴복된다'(Totality and Infinity 45)고 보았다. 레비나스에게 기존의 철학은 '모든 타자성을 자기를 주체화하는 과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적 진실이 추구하는 것은 동일자의 본질적 자기충족성, 자신과의 동일시, 자기 이기주의에 기초한다. 레비나스에게 기존의 철학은 자아학이다(Totality and Infinity 44). 후설의 '의식,' 하이데거의 '존재'개념을 동일자의 권위에 타자를 예측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레비나스는 철학이 의식이나 존재에만 논의를 국한하지 않고, 다시 말해 동일성, 실체, 또는 진리를 강조하는 존재론을 지양하고 타자성을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존재자는 타자를 위한 존재하므로, 레비나스 윤리학은 존재가 아닌 다른 차원의 타자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다.

- 레비나스는 주체의 의식이 전적으로 객체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후설을 거부하고 '타자성과의 관계'를 다루는 지향성을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타인과 '함께 더불어 있음'(공동존재Mitsein) 개념은 타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도 여전히 타자성에 대한 존재의 우위성(Davis 65)을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윤리학적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 레비나스는 자신의 윤리학이 존재론적 철학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조명하는 '광학' 또는 '영혼의 광학'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전체성, 존재, 존재론에만 관심을 가진 철학을 지양하고 타자성이 대변하는 무한성, 외재성, 형이상학을 지향한다(Totality and Infinity 45). 시각은 타자를 향한 주체의 초월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학

- 기존 철학이 존재에 대한 추상적 개념에만 치우쳐 형이상학을 거부했다면 레비나스 철학은 추상적 개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열린 타자성을 향해 주체를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윤리학을 표방한다. “초월을 통한 타자와의 접근성, 이웃과의 접근성은 ... 절대적 현존의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다”(Totality and Infinity 78).

- 주체를 초월하는 타자에 대한 욕망은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학의 기초가 된다. 『전체성과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타인 즉, 신의 무한한 속성을 현현히 나타내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논의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학적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신에 대한 어떤 ‘앎’도 있을 수 없다. 타자는 바로 형이상학적 진실의 장소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필수적인 것이다.”(Totality and Infinity 78) 그러므로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를 묻는 ‘정의의 윤리학’이다.

- 하나님과 영혼의 불멸성은 도덕과 행복이 일치하도록 이성을 이끈다. 레비나스에게 이성은 경험의 반대가 아니라 절대적 경험이다. 이성적인 것으로 가는 길은 탈 개인화가 아니라 ... 타자에게 반응하는 것, 즉 윤리적 행위이다

- 레비나스에게 주체성은 비개성적, 익명적 무한성의 영역인 ‘있음’ 또는 신의 차원이 확장된 영역이다. ‘그의 속성illity과 관계있다. 그의 속성이라는 것은 레비나스가 신이라고 부르는 무한성의 움직임인데 초월 심급이다. 이 속성으로 인해 주체는 타자와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타자의 부름에 응하는 종속적인 존재이며 대한 책임감과 정의를 요구받게 된다.

- 우리 주체는 신이 이 시간과 공간으로 실체화된 존재이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 레비나스의 ‘있음’은 익명성 비개성적 차원으로서 사방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모호한 밤의 차원의 ‘있음’으로서, 무나 비존재가 아니고 밤 형태로 의식의 빛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주체의 바깥에서 언제나 ‘깨어있거나’ ‘불면증’ 형태로 존재한다(171). 이 ‘있음’은 타자로부터의 경계를 확고히 하려는 주체가 자기 동일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타자’이다. ‘있음’으로 인해 주체는 타자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고 ‘불면증’ 또는 ‘피곤함’ 등의 형태로 반응하게 한다. 브로디(Brody)에 의하면 ‘있음’으로 인해 주체는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에게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윤리적 주체성을 확보한다. 이 윤리적 주체성은 나대신 타자를 내세움으로써 주체의 자기 동일성을 깨뜨린다.

-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주체라기 보다 바로 ‘있음’이며 주체는 ‘있음’ 앞에서 ‘탈개성화’된다. 타자를 위하는 노력이 의미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

- 주체가 대면하게 되는 이 타자의 ‘얼굴’은 가장 신성하고 무한성이 드러난 것으로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언어: 발화된 것(said)만 합리적인가. 발화하는 것(saying)은 질문과 대답을 명령하는 책임성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인가?(Time and Order 103) 레비나스는 타자에 충실한 언어를

‘saying’ 이라고 간주하였다. (langue/ parole?)

- 레비나스에게 ‘말하는 것’은 얼굴 앞에서 그것을 단순히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인사하는 것, 또는 타자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때 타자 바라보기는 언어의 제공하기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 타자성의 전형은 세상에서 소외당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구체적 타자이다. 그에게 진정한 윤리적 주체는 신 혹은 타자의 흔적이 ‘얼굴’로 나타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깊이 존중하여 그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길 정도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탄생하는 것 (165)

- 이런 ‘타자에 대한 책임’을 타자에 ‘볼모로 잡힘’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무한성이 어른 거리는 얼굴의 주인공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타자에 대한 책임은 의식을 본인 중심으로부터 찢어내어 타자에 복종시킨다.(166)

- 다른 사람의 현현은 그를 향한 책임감, 그를 향한 의무감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우리는 주체로 태어나기 전부터 타자, 즉 하나님의 무한성 안에 사로잡혀 있다. 윤리는 하나님의 시각 자체이다

- 토라는 타인의 얼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고 정의를 통해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진다. 이를 통해 존재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 토라는 율법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에서 논리를 초월하며 모든 고양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 칸트와 레비나스의 유사성: 크리츨리는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윤리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칸트의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 타자에 대한 존경 다른 사람을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목표로 대하라는 원칙과 같은 결의 내용이라고 평가한다.

서구 존재론의 폭력성

무엇보다 레비나스 사상의 성립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 불행이자 전 세계의 불행이기도 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체험이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은 그는 2차대전 이후 평생 독일 땅을 밟지 않았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서양 존재론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의 철학이다. 고유성을 무시하고 타자를 전체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지배적인 사유 방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찰은 저 아우슈비츠의 체험에 힘입은 바 크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상실하고, 타자를 나의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기 위해 국가 사회주의 같은 전체주의의 이념을 강요하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묻는다.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나치즘과 파시즘이 일으킨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명되지 않으며, 또 여러 형태의 휴머니즘을 통해서 방지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동일자(나)로 환원하는 서구 존재론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유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첫째가는 관심은, 나라는 동일자로 흡수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 타자에 대해 가지는 윤리적인 책임성이 나의 나됨, 즉 나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임을 보이는 것이 된다.

자신에게 전념하는 이기적인 삶,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욕구(besoin)하는 대상을 흡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종속된 것으로 만든다. 한 마디로 나는 미다스왕처럼 온갖 타자를 자기 소유의 황금으로 바꾸면서 내가 주인인 세계를 구성한다. 자기보존욕을 타고난 존재자 일반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게끔 되어있다. 요컨대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레비나스는 내가 세계의 주인으로써, 나의 욕구에 따라 세계를 즐기고 관리하는 이러한 존재 양식, 혹은 나 자신에게 몰두하여 끊임 없이 나의 세계로 귀환하는 사유를 일컬어 ‘존재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의 존재에 전념하는 “이 시간은 슬픔을 달래고 죽음을 극복하기엔 충분치 않다.” 그것은 노동을 하고 먹거리를 벌여 나를 먹이는 일이 반복될 뿐 아무런 질적 도약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노동과 향유를 통해 세계 안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든 이 고독한 부자에게 찾아올 새로운 손님이란 죽음 밖에 없는 것이다. 죽음이 도착할 때까지 노동과 향유라는 천편일률적인 순간들이 반복되리라.

이와 반대로, 나의 존재 유지를 위해 먹고 마시고 도구를 만드는 나의 세계로부터 떠나, 나의 바깥 혹은 나와 절대적으로 다른 자에게로 가고자 하는 사유를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나의 존재 유지를 위해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는 다른 ‘욕망(désir)’이 있다. 이 욕망은, 플라톤이 ‘욕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서 존재들 너머에 있는 최고선의 이데아’를 이야기했을 때의 욕망, 곧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레비나스 철학은 나의 세계를 떠나 낯선 자에게로 가는 이 ‘초월’의 가능성, 바로 세계 저편으로 가는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숙고한다.

무한한 시간

출산을 통해 도래하는 미래는 어떤 의미에서도 주체의 힘이 거머쥐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비나스에게 미래란 절대적으로 나의 영향권 바깥에 있는 시간이다. 미래는 나의 가능성에서 전적으로 빠져 달아나는 아이의 시간이되, 그 아이는 여전히 나의 아이이므로 해서 나는 나의 가능성과 나의 지배 바깥에 있는 시간,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갈 시간을 걱정하고 그 시간을 위해 무엇인가 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오로지 나의 세계에 속한 것만이 한정가능하며, 그렇기에 나의 세계 저편에 있는 타인, 곧 아이와 그의 시간인 미래는 내가 한정할 수 없는 것, 즉 ‘무한’이다.

나의 아이는 타인이면서, 여전히 모종의 방식으로 ‘나’이다. 아이는 ‘나’이며 타인이기에, 나는 미래로 초월할 수 있는 것이며, 미래는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타인의 시간이면서도 여전히 ‘나’의 모험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나’의 세계 저편의 낯선 곳을 건너다 보는 일, 진정한 삶을 건너다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신은 타자의 얼굴을 통해 말을 건넨다

타자는 모든 것이 박탈된 궁핍한 얼굴의 모습으로 나에게 현현(l'épiphanie)한다. 고통 받는 얼굴은 내가 어떤 식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나와 다른 자이다. 얼굴의 저항이란, 대상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나의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저항’이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은, 가령 ‘살인하지 말라’고 나에게 명령한다. 타자는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나의 주인처럼 내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기를 명령하고 나는 그 명령을 회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도 나에게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나에게 명령하는 타자의 얼굴이란, 형이상학의 대상, 규정 불능의 무한자, 곧 신의 흔적과도 같다. 신은 바로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내게 말을 건넨다. 레비나스는 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신을 통해서 정의하고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신이지, 그 역은 아니다. 내가 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나는 위대하고 전능한 존재의 현존(existence)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 신의 추상적인 관념은 인간적 상황을 명백하게 해줄 수 없는 관념이다. 반대로 인간적 상황이 신의 관념을 명백하게 해 준다.”

이렇게 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교회가 아니라, 이기적인 바람을 담은 기도 속에서가 아니라, 먼저 고통받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은 도래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타자와의 관계가 ‘신’이라는 말이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되는 맥락이라면, ‘존재자’로서의 신을 믿지 않고도 우리는 신이란 말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레비나스의 초월 또는 형이상학이란 바로, 타자의 얼굴을 자신의 흔적 삼아 나타나는 무한자와 관계함을 말한다. 이 관계란, 내가 나에게 전념하는 세계를 떠나, 나와 전혀 다른 자에게로 가서 그를 위해 나를 종처럼 건네주는 일이다. 이렇게 레비나스는 형이상학, 초월, 무한자 등의 고전적인 개념의 의미를 윤리학적 맥락 안에서 새롭게 이해한다.

(서동욱, 「타자의 얼굴 앞에 선 주체」, 『생활 속의 철학』 중에서)